2007금융기관장인터뷰 ② 관인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 수 기

“쌀 공기업 설립으로 農村경제 살려야 한다”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文化 · 福祉농협 구현

관인농업협동조합(조합장 이수기)은 1천13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의원은 조합장 포함하여 57명이며 임원진은 비상임 이사 6명, 감사 2명, 직원 36명이 근무하고 있다.

2006년도 판매사업은 62억4천100만원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벼 수매량은 40kg 기준 4만2천113포대(오대 3만3천611포, 친환경벼 7천384포, 고시히까리 1천118포)를 수매했다.

구매사업은 50억1천만원, 하나로마트사업 22억6천500만원, 신용사업은 예수금 잔액 418억1천900만원, 자산건전성 부문은 총연체비율 2.87%로 사무소평가 그린조합에 해당되고 있으며 신용대손충당금 적립비율 120%와 일반대손충당금 적립비율 198%로 금융감독원 적립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공제사업은 신규 366건 290억원의 계약고 추진으로 총 801억원의 계약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공제로 27억원을 수입했다. 공제금 지급혜택으로 312건 3억8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농업인 안전공제 383건을 가입했고 자금지원으로 공제대출금 27억3천100만원의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교육지원사업은 1억7천200만원을 집행했으며 특히 중앙회와 지자체협력 보조사업을 유치하여 시설원예부분 4억4천만원, 참두릅단지 조성사업 5천800만원, 웰빙 등 기타사업에 1억9천600만원 등 6억9천500만원의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특히 생활복지사업으로 여성지도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리더쉽 교육, 각종 취미교실(전통민요, 사물놀이, 비즈공예)을 운영했으며 정부공식인가를 받아 관인복지센터 운영으로 고령사회로 진입한 관내지역사회 노인들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역사회기관과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인 노인복지센터는 지난해 7월10일 포천시로부터 정식 위탁을 받아 7월31일 개소식을 갖고 관내 독거 노인이나 개인활동이 어려운 노인 76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추진했다.

기본서비스로 가사지원 379회, 우애 1천708회, 개인활동 39회 등 2천126회 서비스 추진과 의료서비스는 관내 보건지소와 연계하여 552회, 기타서비스로 밑반찬서비스 458회, 이미용서비스 관내 미용실 4곳과 연계하여 42회, 차량지원서비스 38회, 포천시청 사회복지과와 연계한 이동목욕서비스는 30회, 06년 11월부터 격월로 실시되는 생신잔치는 3회등 총 571회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서비스는 전문교육(가정봉사원양성교육, 환자기초간호 및 노인간호)을 수료한 농협의 여성단체(부녀회원, 농가주부모임회원, 고향주부모임회원) 80여명이 각 서비스별 봉사조를 편성하여 순번제로 참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요양 보호사를 활용하여 관내 지역뿐만 아니라 영북, 영중, 창수면의 치매나 중풍 등 중증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봉사활동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처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온 이수기(사진) 조합장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쌀 공기업을 만들어서 쌀과 관련된 제품은 물론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존 농가부채를 다 묶어서 저금리로 장기상환 할 수 있는 특별대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며 최근 관인지역에서 쌀농사에서 사과농사와 하우스 농사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쌀은 1평당 생산액이 2천500원이라면 사과나무는 7만원이상이며 쌀 소비량은 1개월에 5~6만원이라면 중산층이 1달간 먹는 과일값은 30만원이상 이라며 사과농사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관인농협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문화 · 복지농협을 만들어가기 위해 ▶완전자립 달성을 통한 농업인 지원역량 확충 ▶농 · 축산물 유통혁신 및 가격 · 품질 경쟁력 강화 ▶건전성 · 수익성 중심의 상호금융사업 추진 등 2007년도 목표를 세워 노력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탐방 우리지역 사업소 ㉔ (주)KCC(금강) 유리대리점 지용유리

아름다운 공간을 연출하는 KCC 유리

대표이사 이 현 덕

다양한 건축물, 대형 고층빌딩에서 생활공간까지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변환경과의 조화는 물론 경제성까지 생각하는 KCC유리는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의 아름다움까지 생각하며 고객의 사랑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주)KCC 유리 대리점 지용유리(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573-3, 대표: 이현덕)는 포천을 비롯한 의정부, 동두천, 연천, 철원 등을 주무대로 경기 북부지역 유일한 대리점으로 원할 한 건축자재를 공급하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

현재 KCC 유리대리점 지용유리는 KCC 여주공장에서 원판을 공급받아 업체들의 주문 신청에 한치 오차가 없도록 하기 위해 우수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저가 판매 · 최 단시간 내 제작 공급 · 최고의 품질보장(평생 A/S보장) · 견적 의뢰 시 10분내 제출가능”을 운영목표로 고객들에게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이 선호하는 업체로다가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최근 이 대표는 충북 음성에 소재하고 있는 톱샤시 제조공장 TOP(주) 톱스톡케미칼과의 대리점 체결로 기존의 유리제품과 샤시를 접목해 고객들에게 한층 더 질 높은 건축자재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톱샤시는 ▷일반유리에서 PAIR 유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차량이나 공사장 등의 발생소음을 완벽하게 차단시켜주는 탁월한 방음효과를 자랑하고 있다.

▷일반 샤시에 비해 열 손실이 적으며, 열전도율이 낮은 PVC 재질에 특수 기밀재를 사용하여 냉 · 난방비 절감에 효과적이며 완벽한 단열효과가 자랑이다.

▷수밀성이 뛰어나 빗물에 의한 변색이나 얼룩지지 않는 안전한 샤시며 뛰어난 방수효과를 자랑하고 있다. ▷합리적인 설계와 재질 자체의 자기윤활성 작용으로 마찰계수가 낮아 소음 없이 부드럽게 개폐되는 것이 장점이며 특수 첨가제 사용으로 변색되지 않으며 우수한 난연성을 자랑하고있는 우수한 제품이다.

최저가 판매 · 최 단시간 내 제작 공급

품질 보장 · 견적 의뢰 시 10분내 제출

위 지역 외에도 남양주, 구리 등 현재 거래하고 있는 업체 수는 80여 업체로 지속적인 관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광범위한 지역 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 대표가 유리업과의 인연이 된 것은 예전에 유리업을 하다가 지금은 현대인쇄소를 운영하고 있는 작은 아버지(이세일)때문 이라고 한다. 그 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리에 없을 것이라며 지금도 마음속에 항상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이 대표는 지난 1997년 사업에 첫발을 내딛은 후 KCC와 경기북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 6년 동안 관계를 맺어오고 있으며 경기도 지역에서 실적이 좋아 본사로부터 공로패를 받을 정도로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으며 확고한 교두보를 다지고 있다.

문의 T 031)542-0441, 542-1498.
HP 018)264-1498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주) KCC 유리 대리 점 지용유리 본 포 천 월 롯 현 정 , 부동두천, 연천, 철 원 등 을 무 대 로 경기 북부지 역 유 일 한 대리 점으로 원 할 한 건축자 재를 공 급하며 입지 를 다지고 있 다

재테크 ㉕

가장 빨리 늙어 가는 한국, 퇴직연금이 대책이다 (1)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 가는 국가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 인구의 7%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불린다.

프랑스는 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119년,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40년이나 걸린 반면 장수 국가인 일본은 24년과 12년 밖에 안 걸렸다. 무엇이든 빨리빨리 해버리는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가 되는데 19년,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고작 7년이면 된다고 한다.

이처럼 한국의 인구 구조가 급속도로 늙어감에 따라 1980년에는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가능 인구(15 64세)인 ‘노년부양비’가 16.3명이었으나 2003년에는 8.6명으로 낮아졌다. 또 2030년에는 2.8명으로 더욱 줄어 한국 경제의 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사회적 부담은 무거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장수는 개인과 국가에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럼 대책은? 크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 기업에서 준비하는 퇴직연금,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이다.

그 중 퇴직연금제도란 퇴직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재원 확충 및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재직기간 중의 퇴직급여를 사외에 적립한 후 이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5년 12월에 도입되었지만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에 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기존의 퇴직금과 새로 도입되고 있는 퇴직연금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표 참조)**

구 분	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수준	근속연수×1일 분 평균임금	퇴직금 적용	운용수익에 따라 틀림
급여형태	일시금	일시금 연금 선택가능	
비용부담	회 사	회 사	회 사
부담수준	30일 분 평균임금	근로자 연금액의 1/11의 상	운용수익에 따라 동
운용책임	회 사	근로자	회 사

그렇다면 퇴직연금제도가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근로자 측면에서는 첫째 다니던 기업이 도산할 경우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퇴직연금은 사외에 적립되기 때문에 기업이 망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둘째, 퇴직금의 경우 중간정산, 연봉제, 이직 등으로 노후를 보장할 수 없지만 퇴직연금제도는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이직 여부와 상관없이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업 측에는 첫째, 퇴직연금 부담금은 퇴직금여충당과 달리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제 절감 혜택이 있다.

둘째, 갑작스런 직원의 퇴직에도 금전적 부담이 없다. 더 나아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해 준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어 노사관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고령사회가 될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퇴직연금, 다음에 퇴직연금 도입 절차와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무료상담
한경희 컨설턴트
011-9030-7917

사례로 알아보는 부동산 무상식

사업자등록 시 확정일자 받아놓자

정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임차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2002. 11. 1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용 대상

상가건물을 빌린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보증금+월차임환산액(월세 × 100)]이 지역별로 일정 금액(의정부시는 1억9천만원, 양주시 · 포천시 · 동두천시 · 연천군 철원군은 1억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 야하며, 확정일자를 받아 야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신청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하다.

▶임차인 이 보호받는 사 항

1. 대항력이 생긴다.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확정일자가 없어도 됨)

2. 보증금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확정일자를 받 아 야함)

3. 소액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 공매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변제 순위가 결정되지만,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경매가액의 1/3범위 내에서 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하여 보증금의 일정액을 변제 받을 수 있다.

4. 지나친 임대료 인상이 억제된다.

임대료인상 한도가 연 12%로 제한되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도 15% 이내로 제한된다.

※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한다.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 아 놓 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당해 건물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우선순위에서 뒤 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 길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자료제공 : 의정 부세무 서(031-870-4321)

산업안전사고 예 방

CNC 수직선반 작업 시 (Flange) 사이에 협 착

▶재 해 발생개요

금속제품 생산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CNC수직선반을 사용하여 Al-Wheel 생산작업을 하던 중 Al-Wheel의 떨 림을 확인하기 위해 CNC 수직선반의 문을 열고 확인하고 있을 때 갑자기 Gantry Loader가 자동 하강하여 Loader와 Finger의 Al-Wheel 플랜지 사이에 목이 협 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 해 발생원인

가. CNC 수직선반의 점 검 · 수 리 작업 시 운전정지 미실시

가공물이 가공면 검사 등 비정상작업 중 협 착 나, 말림의 위험이 높은 공작기계의 가공부에 접근시 주요기능의 작동을 정지시키고, 작업을 실 시 하 였 어 야 하나 미실시.

나. 운전시작 전 확인 미 흡

공작기계 작업 중 가공제품의 확인 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 칠 우 려가 있는 때에는 설비의 운전 시작전 근로자 교육 작업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시 작 하 여 야 하나 이를 미 이행.

▶동종재 해 예방대 책

가. 공작기계 안전문의 연동장치 정상

작동

공작기계의 안전문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적 연동장치는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임의로 리미트 스위치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연결부위의 볼트 등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공작기계에 부수된 안전방호장치 및 안전방호대책의 효력이 정상유지.

나. 공작기계 정비 · 점 검 · 수 리 작업시 운전정지

로 봇 을 운전하는 경우 근로자가 로 봇 과 접 촉 되 지 않도록 안전매트 또는 근로자가 임의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개구부가 없는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을 설치해야 함.

자료제공 : 한국 산업안전공 단 경기 북부지 도원(031-820-0291)

국민연금 Q&A

남편을 살해한 부인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

고의살해 경우 유족연금 못 받아

우선순위 가족이 승계 … 가해자 함께 사용 제재 못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부인이 남편을 고의로 살해했을 경우 부인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부인 이후의 최우선 유족연금 수급자인 자녀(18세 미만이거나 장애2등급에 해당)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면, 부인이 자녀가 받는 유족연금을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문제이다. 설사 그렇다할지라도 현행 제도에 아래서는 여기까지 제재할 방법은 없다. 처벌은 직접 당사자만 받으면 되지 자녀에게까지 전가시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유족연금을 지급 받은 자가 어떻게 사용하든 간섭할 사항도 아니다.

만약 피상해자가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는 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 최우선 수급권자인 부모가 유족연금을 받는다. 부모가 생존하지 않을 시에는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유족연금 혜택이 돌아간다.

자녀가 아버지를 상해해도 마찬가지다.

아들이 아버지를 고의로 살해했을 경우 아들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지만 다른 유족은 받을 수 있다. 이때도 역시 부인이 유족연금을 아들과 함께 사용하더라도 법적 제재는 없다. 고의 살해가 아닌 과실 치사인 경우는 규정대로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 031-544-8700